해남스포츠파크 준공 '스포츠마케팅' 날개 단다

군, 삼산면에 제2스포츠타운·야구전용구장 등 구축
동계훈련선수단 쇄도…"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기대"

해남군은 최근 삼산면 평활리에 위치한 해남스포츠파크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제공=해남군

해남스포츠파크가 문을 열며 해남군 스포츠마케팅의 거점시설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삼산면 평활리에 위치한 해남스포츠파크 준공식을 가졌다.

해남스포츠파크는 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과 주민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조성된 해남군 제2스포츠타운으로, 기존 해남읍 우슬체육공원에 집적된 체육시설과 함께 해남군 스포츠마케팅을 이끄는 핵심시설로 운영된다.

총면적 8만7767㎡ 규모로 조성된 종합체육시설로,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과 각종 부대시설을 갖췄다.

특히 국제 규격(105m×68m)에 관람석 396석을 갖춘 축구장과 정식 규격의 야구전용구장(중앙펜스 121.918m, 우측펜스 99.058m),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 1만3297㎡ 규모의 복합구장 등은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동계훈련 기간 중에만 연인원 1만여명의 선수단이 찾을 정도로 벌써부터 관계자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받고 있으며, 준공식에는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직접 참석해 시설을 둘러보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제2스포츠타운을 삼산면에 조성해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면 단위까지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삼산면은 해남 대표 관광지인 대흥사권역을 포함한 곳으로, 스포츠파크를 통해 해남읍과 대흥사 권역을 연결하는 스포츠벨트의 중심축을 조성, 숙박·음식업은 물론 관광과 지역 농산물 소비까지 이어지는 스포투어(SPO-TOUR)의 발전 전망을 구상하고 있다.

삼산면에는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대규모 농업연구단지도 들어서게 돼 굴뚝없는 청정산업의 메카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스포츠파크 가동으로 올해 동계훈련 선수단이 4만 1,000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도 4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 스포츠파크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해남이 '대한민국 스포츠마케팅의 성지'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며 "스포츠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앞으로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 유치를 확대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강진,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다누리 행복마을 사업' 시행

강진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명흥, 임창복)가 주관한 '2026년 찾아가는 다누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최근 강진읍 목리마을에서 시작됐다.

올해 첫 회인 다누리 행복마을 사업은 시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활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행사에는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염색·커트, 화분만들기, 물리치료버스 운영, 노인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에는 장수사진과 네일아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수도, 전기, 보일러 등 전문자원봉사자와 함께 동행해 어르신들 거주지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만족도를 높여 호응을 얻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

영암, 찾아가는 외국인등록 서비스 운영

광주출입국 목포출장소 협업
농가·근로자 편의 등 개선

영암군은 3일부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지난해 열린 영암군 계절근로자 입국행사 모습.

영암군은 3일부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목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암군은 출장소와 거리가 멀어 왕복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농번기에는 농작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은 영암군청 현장에서 처리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 또한 군청에서 공문으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 운용이 중요한 농가의 경우 행정 절차로 인한 작업 중단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아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출입국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행정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완도군, 소상공인 금융 비용·경영 지원

9억 투입…카드 수수료 최대 40만원 등 규모 확대

완도군은 올해 9억여원을 투입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 비중이 늘면서 커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규모를 늘렸다.

완도사랑상품권(카드) 가맹점 중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업체 600개소를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를 지난해 30만원에서 33% 증액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517개소에 1억 1200만원을 지원, 올해 예상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6-108호)를 확인하면 된다.

군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500만원을 출연하고 특례 보증 대출의 이자와 보증 수수료 지원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NH농협은행 등 협약을 맺은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군에서 2년간 연 3%의 이자를 내준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완도지점 상담창구(061-550-8800)로 하면 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 공공 배달 앱 '먹깨비' 활성화, 홍보비 지원, 포스기 등 디지털 기기 구입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월 3만원씩 최대 8개월 동안 공제 부금을 지원하고, 신규로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을 마련해 마케팅과 경영 컨설팅을 돕는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